

《ごあいさつ》
《인 사 말》

伊藤 勲
이토 이사오
財団法人 ユニベール財団 理事長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ごあいさつ

伊藤 勲
財団法人 ユニバーサル財団
理事長

第6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にご参会くださいました皆様に深く感謝申し上げます。

過去5年間、5回にわたり開催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を、この度、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はじめ共催の団体の諸先生方にご参画いただくことで、内容を拡大、充実して、一週間にわたる「日韓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として継続させていただくことになりました。小さな点から始まった取り組みが、線となり面と広がってまいりましたのも、関係各位の皆様方のお力添えあつてのことと、心より御礼を申し上げます。

ここに日本と韓国の地域福祉関係者が一堂に集まり、課題を深めつつ、社会福祉を学ぶ大学院生を^{しょうへい}開催国に招聘し、学び、交流するプログラムを進めてまいります。さらにこのプログラムを将来は東アジア全体に広げ、各国の地域の結びつきと融和を目指すべく、それには、まず日本と韓国が連携を深めて取り組んでいこうという先生方のメッセージをここから発信してまいりたいと思います。

ユニバーサル財団は、仏教教団宗教法人真如苑の開祖、故伊藤真乗教主の遺志により設立されました。

当財団では仏教精神のもと、人類がかつて経験したことのない高齢社会の課題に取り組む研究や活動に対して支援を行うプログラムを実施してまいりました。

21世紀、急速に少子高齢化が進む中で、それぞれの地域において人々が安心して暮らせるよう、地域住民や社会福祉関係者がお互いに協力して地域社会の課題に取り組むことの大切さが求められております。当財団にも研究助成や市民活動助成のプロ

グラムがございますが、研究者や活動の専門家から地域福祉に関わる申請の応募が、実に多く寄せられています。

私たちは、こうした経験、実績などを通して、高齢者自身が積極的に社会参加、世代を越えて地域で交流、貢献していくことが、豊かな高齢社会をつくるものと信じ、これからも活動を続けてまいり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

この“こころの交流”プログラムは、異文化の交流でもございます。相互に多様性を認め合い融和・和合の姿勢の中から日本と韓国、さらには東アジア全体へと、21世紀にふさわしい、グローバルなネットワークを構築していきたいと思っております。それには、若い人材の育成が大切であります。真心とまことのこもった一人の人の行いが多くの方に幸せという宝をもたらし、そこから、私たちの求める世界平和が実現されていくものと確信いたします。

인사말

이토 이사오
재단법인 유니벨재단
이사장

제 6 회 “한 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5년간 다섯차례에 걸쳐 개최된 “한 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움을 이번에 일 본사회복지교육연맹을 비롯한 공동주최 단체의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셔서 내용을 확대하고 충실히 해서 1 주일간에 걸친 “한 일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작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되고 그리고 면적으로 확대되게 된 것은 관계자 여러분들의 힘이 합쳐져 일구어진 결과라고 생각, 마음으로부터 새삼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여기에 일본과 한국의 지역복지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여 과제를 깊이 연구하면서 사회복지를 배우는 대학원생을 개최국으로 초청해서 배우고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프로그램을 장래는 동아시아 전체에 확대해 각국과의 지역 연대와 융화를 목표로 해 우선 일본과 한국이 연계를 깊이 하고 여러선생님들의 메시지를 여기에서부터 보내고 싶습니다.

유니벨 재단은 불교교단 종교법인 신노엔(眞如苑)의 開祖 이토 신조 (伊藤眞乘) 교주의 유지로 설립되었습니다.

본 재단에서는 불교정신의 근본인 인류가 과거 경험한 적이 없는 고령사회의 문제에도 대처하는 연구나 활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1 세기 급속한 소자 고령화의 진전속에서 각자의 지역에 있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나 사회복지관계자가 서로 협력해서 지역

사회의 과제에 대처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재단에도 연구조성이나 시민활동조성의 프로그램이 있지만 연구 활동의 전문가들로부터 지역복지에 관한 신청의 응모가 실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같은 경험, 실적 등을 통해서 고령자 자신이 적극적으로 사회에 참여하고 세대를 넘어서 지역에서 교류, 공헌해 가는 것이 풍요로운 고령사회를 창조할 수 있다고 믿어 이제부터라도 활동을 확대,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 마음의 교류 프로그램은 서로다른 문화와의 교류입니다. 서로가 다양성을 인정하고 융화 화합의 자세로 일본과 한국, 더욱이 동아시아 전체에 21 세기에 적합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젊은 인재의 육성이 중요합니다.

진심과 성의가 깃든 한사람 한 사람의 행동이 많은 사람에게 행복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들이 구하는 세계평화가 실현될 것임을 확신합니다.